

구윤철 부총리, 주요 7개국 협의체(G7) 재무장관회의 참석

-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 공유 및 국제적 연대 강화 강조 -

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.8.(월)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(G7)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,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(한국, 호주, 인도, 멕시코, 칠레 등) 재무장관이 참석하였으며,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/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*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하였다.

* 10.15.(수) 미국 워싱턴 DC, 주제: 인공지능과 금융범죄, 사기

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회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,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

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,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·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,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,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·절감 기술개발,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.

마지막으로,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,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재우 (044-215-48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선 (dje9350@korea.kr)
			사무관	원종혁 (gur2794@korea.kr)
		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	책임자	팀 장
	담당자		사무관	신정미 (jungmi1210@korea.kr)

